준공 3년 안 된 장흥댐 송수관로 파손

진도 등 5천여가구 수돗물 중단

부실 시공·공법상 하자 사고 발생 가능성

전남 남부권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송수관로가 파손돼는 사고가 발생, 진도와 완도 일대 5천여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 송수관로는 준공된지 채 3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공사의 부실 시공이나 공법상의 하자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37분께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장전마을 입구 지하 1.7m 지점에 매설된 송수관이 터졌다.

이날 사고는 지름 900mm의 주철관(鑄鐵管)을 잇는 이음새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했다. 이 이음새는 크기 300㎜의 볼트 8개로 고정돼 있었다.

이날 사고로 진도와 완도, 해남 일부 지역 5천여가구 수돗물 공급이 6~25시간 가량 끊겼다. 이 가운데 진도는 복구 공사가 완료된 이날 오후 6시30분까지 수돗물 공급이 전면 중단돼 1천500가구 주민들이 식사 준비와 보일러 가동 등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송수관은 수원(水源)인 장흥댐에서 신안 지도까지 총연장 340㎞에 걸쳐 묻혀 있으며, 전남 남부지역에 하루 평균 9만t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이날 사고 원인이 최근 지속된 폭설과 이상 한파로 인해 주철관이 팽창하면서 연결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주철관은 철제 재료의 특성상 기온 변화에 따라 관이 미세하게 수축·팽창을 하는데, 그동안 한파로 인해 수축됐던 송수관이 기온 상승으로 갑자기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음관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송수관은 지난 2007년 6월 준공된 지 2년7개월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실 시공 및 공법상 하자 등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송수관은 H건설, D건설, T건설 등 3개 건설사의 공동 참여에 의해 총 3천504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됐다.

21일 새벽 수돗물 송수관 사고가 발생한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장전마을 입구의 밸브실 지하.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수자원공사는 사고 발생 1시간17분이 지난 새벽 1시50분께 송수관 이탈 지점을 확인하고 복구작업에 들어갔다. 또 소방차 37대를 동원해 진도 지역을 중심으로 급수활동에 나서는 한편, 식수 5만병을 공급했다.

그러나 진도 일대 고지역은 복구작업이 완료된 뒤에도 수돗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수자원공사 측은 22일 새벽 1시께 수압이 낮은 고산지대까지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송수관의 주관압(물의 압력)이 정상치(8.6kg/㎠)를 크게 밑도는 3kg/㎠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복구작업에 착수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 이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광양시도 '퇴직 금메달'

1인당 10돈…올해 예산 360만원 책정

강진군은 전면 폐지

강진군이 퇴직 공무원에게 고가의 순금 메달을 선물해 물의〈본보 21일자 보도〉를 빚은 데 이어 광양시에서도 '퇴직 금메달'이 관행처럼 전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20년 전부터 공무원들의 정년이나 명예퇴직시 예산을 세워 순금 10돈짜리 금메달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양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평생 동안 공직에 근무하며 주민들에 봉사한 공로를 인정해 시로 승격 전인 군 시절인 20여년 전부터 예산으로 순금 10돈짜리 메달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도 360만원을 책정해 퇴직자 2명에게 금메달을 선물할 예정이며 2008년에는 3명, 2007년에는 2명에게 금메달을 전달했다.

한편 강진군은 퇴직자 순금 기념메달 지급에 대한 선심성 논란이 일자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강진군은 21일 "지난 2006년부터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20돈(시가 340여만원 상당)의 순금메달을 제작, 지급했으나 일부에서 선심성 논란이 제기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말 9명, 2008년 16명, 2007년 20명, 2006년 9명의 퇴직공무원에게 순금 메달을 지급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사우나 수면실서 40대 의문의 죽음

어제 광주 북구 유동

21일 새벽 5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최모(49)씨가 가운을 입은 채 숨져 있는 것을 종업원(36)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종업원은 경찰에서 "수면실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혼자 누워 있는 최씨를 보고 깨웠는데,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최씨는 방바닥에 반드시 누운 상태였으며, 시신 옆에서는 이물질이 담긴 콘돔과 비아그라가 발견됐다. 외상흔적은 없었다.

자영업자인 최씨는 이날 일을 마치고 사우나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병이 없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숨진 최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조개잡이 60대 남성 실종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해안가로 굴을 따러 갔던 조모(65·영광군 염산면)씨가 짙은 안개 때문에 갯벌에서 길을 잃고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해경은 조씨가 짙은 안개 속에 방향 감각을 잃고 들 물이 찬 갯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희망근로 기부금은 채용대가?

경찰, 전 구청 수사 확대

광주시 남구청 '희망근로 기부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기부금의 성격과 강제성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남구청 희망근로 담당 직원 강모(52·6급)씨가 희망근로 참가자들의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된 배경을 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희망근로 참가자들이 한 달 평균 10~15일 가량 일했음에도 매일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일지를 작성, 40만원 상당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했다.

경찰은 또 6개월간 9명의 노인들이 매월 20여만원씩 총 1천100만원을 황일봉 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복지법인에 기부한 점도 눈여겨 보고 있다. 60만원의 현금과 30만원 상당의 희망근로 상품권을 받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20만원을 매월 기부했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애초 저소득층 집수리 등 봉사활동을 해오던 '노노 봉사단' 단원 9명이 일시에 희망근로에 채용된 것에 주목, 기부를 명목으로 '채용대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남구가 이들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을 건네받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남구에서 희망근로를 했던 1천100명의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김형호기자golee@

원룸촌서 8명 성폭행

동부경찰, 30대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21일 광주지역 원룸촌을 돌며 8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장모(34)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4년 10월 28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동구 모빌라 2층 창문을 통해 침입, J(28)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만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는 등 지난 7년간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현금 47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성폭력 등 전과 5범인 장씨는 주로 새벽시간대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 만을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짚풀 공예 신기해요" 21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주민센터 짚풀공예 체험학습장에서 열린 '짚풀 공예 교실'에 참가한 어린들이 신기해하는 표정으로 새끼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배우 이병헌 '불법도박' 밤샘조사

쌍나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1일 인기배우 이병헌(39)씨가 불법도박을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이씨를 고소인 겸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밤샘조사.

○…검찰 관계자는 "본인 동의 하에 이씨를 소환해 어젯밤 8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조사했다"고 설명.

○…앞서 이씨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권모씨는 지난달 8일 이씨의 결혼 유혹으로 성관계를 가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이틀 뒤 불법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고발.

○…이씨는 같은달 14일 권씨를 고소하는 한편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에게서 '20억원을 주지 않으면 권씨와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수사를 의뢰. /연합뉴스